만유평등 이치 아시겠습니까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만물은 제각기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스스로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멸은 없고 그 안에 미혹도 깨달음도 없으며 차별이 없고 평등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러분은 진속(眞俗)이 평등한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두두물물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시방법계가 보리의 도량입니다. 마음 밖에는 진리가 따로 있지 않고, 부처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심을 여의고 함께 밝음으로 나아가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부처님 나툰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한생각이 밝아지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눈을 밝힙시다.

모든 생명 부처로 탄생한 날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우리의 마음은 모든 진리의 바탕 자리이기도 하지만 악행을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본래면목이 가려지고 번뇌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無明)과 미혹을 깨치고 무애자재한 삶을 사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본래 깨끗한 우리의 참나를 되찾으면 그것은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삶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는 사라집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내 안의 부처를 깨달아 갑시다. 이와 함께 불성을 가진 여러 뭇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 실천에 나아갑시다.

一念으로 燃燈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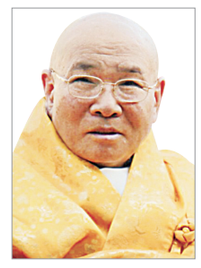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本來緣有地
因地種花生
本來無有種
花亦不能生

본래 인연 있는 땅에
땅을 이어 꽃의 종자 피어난다
본래 있을 종자 뿌리지 아니하면
꽃의 종자도 나지 못하거늘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뜻은 우리 중생들과 인연이 있어 제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법(佛法)인연에 더욱 발심하여 모든 중생들과 함께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는 불자가 됩시다.

한 생각에 날마다 좋은 날



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만청 스님

본래 청정한 마음의 밝은 달이 일체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탁악세의 사바세계가 한 마음 돌리면 바로 정토입니다. 번뇌망상에 빠진 스스로를 돌아봐 자성청정의 참나를 찾으면 그 자리가 부처님이 나신 곳이며, 그 곳이 바로 부처님 세상입니다.

허망한 나를 버리고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장엄한 세계로 나아갑시다.

누구를 만나도 보살이요, 어디를 가도 불국토입니다. 지금 부처로 사는 마음을 내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한 생각을 바로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니 대각의 가르침입니다. 저마다 마음 속 평화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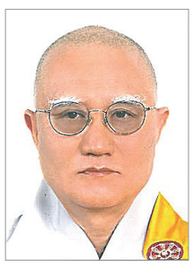
마음에 자비의 꽃 피웁시다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 찬란한 향기를 뿌립니다. 오탁악세에 머물러도 오염되지 않는 우리들의 참된 마음이 부처님오신날 연꽃으로 피어납니다. 깨달음의 빛으로 우리의 무명을 없애는 광명을 안기는 연등을 저마다 들고 함께 정진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뭇 생명들의 조화와 화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정 무정물이 모두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 소중함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 올립시다.

마음속 불성의 등불 밝힙시다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명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퇴전의 보살행을 쌓아 자비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마침내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입니다. 마음 속에 불성의 등불,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히시고 모두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생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광명(光明)으로 나투신 날이요, 뭇 중생들의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는 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자성이 본래 생겨남이 없고, 오고 감이 없으며, 오직 맑고 밝은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부처이며 다 같은 주인이니 모두의 생일인 것입니다. 부처로 살기 위해서는 부처다움을 보여야 하니 중생제도 위하여 정진해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행복한 정토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우리 부처님은 중생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성불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열반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부처는 오고감이 없는데 어떤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을까요. 위대한 스승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기쁨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합시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벗어나 성불에 이르기 위해 보살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가장 큰 행복을 찾아라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을 존중하라. 어둠 속에 빛을 만난 듯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소중하게 여겨라.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니 내가 세상에 더 살아있다 해도 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에 금을 내고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계를 잘 지켜 적정무위의 안락을 얻고 몸과 마음이 한가로워진다. 부디 계를 청정히 하여라.

행복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청파 스님

부처님오신날이 밝았습니다. 부처님은 전 인류의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자비로우신 어버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았던 생애는 팔십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르침을 우리 불제자들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전해 나가야 겠습니다. 행복한 부처님오신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안의 평화, 사회 평화로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혜지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은 자만과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이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는 나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무명 밝히는 등불 밝히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不滅燈兮長明燈 人人皆皆人人燈
長命燈兮不滅燈 世世年年世世燈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라. 영원토록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년년 광명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지혜와 자비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소서.

인간 존엄 회복의 해로



대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스님

아기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탄생게를 외치신 것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스스로 주인이라는 인간 존엄의 선포이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존엄합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인간존엄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둡고 슬픈 고통의 세계에 행복과 평화를 전하는 것은 바로 자비실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심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내 안의 불성 깨달아 갑시다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이자 어버이이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제도의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 때의 심정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함께 도반으로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갖춰진 불성을 깨닫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는 뜻깊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염화미소 진전을 전등하는가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청암 스님

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教外別傳

불조께서 이 도리를 가섭 존자께 전했으며 중원의 임제선사에 이어 오늘의 수행자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누가 눈의 못을 제거하고 염화미소의 진전을 전등하겠는가? 석탄일을 맞이하여 봉축과 더불어 가열찬 탁마의 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을 부처님처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되는 날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사람이 사라지고 물질만이 남은 인간 존엄성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욕망이 충돌하여 갈등이 양산되는 이 시기에는 이기적 생존의 욕구만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연기적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님임을 자각하고 함께 상생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는 항상 가까운데 있다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일곱자인데 얼굴에 눈 두개, 귀 두개, 코구멍 두개, 입까지 일곱 개가 붙어 있어서 우리 얼굴이 화엄경이다. 눈 두 개는 일월광명세존(日月光明世尊)이 상주설법(常住說法)을 하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는 성문여래(聲聞如來)로서 상주설법 하고 있고, 코구멍은 향적여래(香積如來)로서 설법하고 있고, 입은 법희여래(法喜如來)로서 설법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 도가 있는데 구하려고 하면 자꾸 멀어진다. 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

갈등 소멸의 기회로 삼자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장 자운 스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리석음, 욕망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을 위해 정진합시다.

부처님을 따르옵니다



용화법원미륵종 종정 현진 스님

부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의 어두운 가슴을 밝혀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누추한 중생을 찬란하고 빛나는 불성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의 험로에서 방황할 때 광명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부처님을 항상 따르옵니다. 고해를 방황하는 중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가르쳐 주셨기에 부처님은 나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